

교양 학생평가기획단 최종 결과보고서

모듬명		교양있조				
모듬 구성원	대표	이름		학과(부)		학번
	구성원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이름		학과(부)		학번
제안 영역		1. 성적 평가 방법				
		2. 교양 교과목 수업 평가				
		3. 수업 방법				
		4. 수강 신청 교육 환경		O		
		5. 교양 인식 개선				
		6. 기타				
1. 프로젝트 주제는 무엇인가요?						
<p>우리 조의 프로젝트 주제는 교양 프리패스권 도입이다.</p> <p>교양 프리패스권이란 학생이 원하는 교양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장치를 만들어주는 제도이다. 학생의 입학 당시 교양 프리패스권을 부여하여 수강희망과목을 신청하며, 교양 프리패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은 개인 당 2개로 제한을 둔다. 또한 각 교과목 마다 프리패스권을 사용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비율을 정한다. 만약, 각 과목의 프리패스권 사용 가능 인원 초과 시 1. 전 학기 추천 탈락자, 2. 졸업사정에 해당 교과목이 포함되는 자, 3. 졸업이 임박한 자(고학년) 순으로 우선순위 기반 추첨을 통해 처리한다. 교양 프리패스권의 사용기한은 4년이며, 학생은 입학 직후 프리패스권을 사용할 학기와 과목을 지정해야한다. 지정된 학기와 과목은 해당 학기에 도달하기 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이를 보조할 수단으로 교양 과목 홍보를 위해 신입생들에게 교양 과목 개설 목록 책자를 학교 굿즈와 함께 지급한다.</p>						
2. 해결하고자 하는 교양 교육과정 문제는 무엇인가요?						
<p>1. 수업 자기 결정권 침해</p> <p>현재 전남대학교는 선착순 수강 신청 시스템으로, 현재 수강 신청 시스템은 접속 환경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 싶은 교양 수강 신청에 실패하여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강 신청 당일에 수강 신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며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남대학교 15개 단과대학 중 일부 단과대학(본부직할학부, 간호대학, 생활과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시융합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이상 13개, 여수캠퍼스 및 의료계열 특수 단과대학 제외)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서를 한 결과, 단과대학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수강 신청 실패로 인해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선착순 수강 신청의 부정적인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선착순 수강 신청 시스템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대학교 수강 시스템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더 나아가 학생의 수업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p>						
<p>2. 학생들의 교양 교과목 인지 부족</p> <p>전남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위해 새로운 여러 교과목을 신설하거나, 없애는 등</p>						

개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현재 교양 교과목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교양교과목이 파일로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신청할 과목의 수업계획서 외에는 정보를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도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남대학교의 단과대학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들을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는 찾아보지만, 교양 교과목 전부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으며

12개 단과대의 학생들이 교양 과목 책자가 있다면 이를 참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므로 학생들 신입생들에게 교양 과목 책자를 나눠주는 방안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 별첨. 전남대학교 재학생 면담 요약본

Q. 자신이 듣고 싶었던 교양 수업을, 다른 모종의 이유로 듣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A. 수강신청에 실패하여서

Q. 학교에 재학하면서 수강 신청 전 교양 수업 목록과 그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직접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계기로 찾아보았습니까?

A. 수업의 강의 방식이나 평가 방식을 알기 위해 수업계획서는 찾아본 적이 있음.

Q. 자신이 신입생이라면, 매년 신입생에게 교양 수업 목록을 포함한 전남대만의 특색 있는 굿즈를 배송한다면 수강신청 시 참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A. 네. 선배들의 후기가 들어간다면 더 참고하기 좋을 것 같음.

3.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문제 해결의 필요성 및 중요도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데이터 및 통계, 선행연구 자료 등 제시)

각 학과에서 들어야 하는 필수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자기 결정권이 방해를 받고 있고, 학교 측에서 다양한 교양 수업을 개설했음에도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이를 보완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교양 선택권을 더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주제를 선정하였다. 해결방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다른 대학들의 수강신청 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는지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수강희망과목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재학생(이**,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노어노문학과 재학)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수강희망과목을 예약하는 방법은 전남대학교와 같지만, 무경쟁 신청으로 인해 실제 수강신청 당일, 모든 과목을 다 신청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으며, 학년 우선순위에, 비율에 따라 저절로 신청이 된다는 점이 우리 학교와 달랐다. 답변자는 이러한 수강신청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으며 반수 시절 중앙대학교의 수강신청은 전남대학교와 같았던 부분을 고려하면 고려대학교 수강신청과 유사한 우리의 교양 프리패스권 도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교양 프리패스권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입생을 위한 전남대학교 키트 배송'을 제안한다.



< 경북대학교 >

< 고려대학교 >

< 한양대학교 >



< 동국대학교 >

< 국립 안동대학교 >

< 이화여자대학교 >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신입생을 포함해서 현재 전남대학교 재학생 중 다수가 신설 교양 과목 뿐만 아니라 개설되어 있는 교양 과목들의 종류를 알기 어려워한다. 우리가 조사해 보았을 때,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을지라도 학교 홈페이지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 학기에 들떠 있는 신입생들의 관심을 자극할 방법으로 교양 책자를 포함한 굿즈를 제안한다. 여기서 우리의 중점 포인트는 책자만 배송할 것이 아닌, 위의 예시들처럼 전남대만의 특색 있는 굿즈를 함께 보내면 책자만 보냈을 때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신입생들이 우리 학교의 교양 수업을 미리 파악하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책자만 보냈을 때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 별첨. 고려대학교 재학생 면담 요약본

1. 현재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수강신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 본격적인 수강신청 전에 수강희망과목 등록을 함. 학생의 임의대로 과목 별로 순위를 매겨서 등록함. 수강희망과목 등록 인원이 수강 인원보다 적으면 무경쟁 신청됨. 만약 넘치게 된다면 순위별로 비율을 나눠줌. (1순위가 가장 큰 비율, 순위가 내려갈수록 비율이 적어짐) 이 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 수강희망과목 등록자료만 수강인원을 채우는 것이 아닌 일반 신청자의 TO도 절반 정도 남겨놓음. 4학년 -> 3학년 -> 2학년 -> 1학년 순으로 수강신청이 이루어짐.

2. 본인이 생각하는 고려대학교 수강신청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A: 장점 - 간편함. 이해하기 편함. 공평함. 자신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음. 수강희망과목 등록을 통해 수강신청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본 수강신청 때 여유를 가질 수 있음. 단점 - 너무 순식간에 결정됨.

3. 현재 고려대학교 수강신청 방법은 학생의 과목 선택 자유권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네. 공평하다고 생각함.

4. 반수를 하셨는데 전적대인 중앙대학교의 수강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A: 수강희망과목 등록 제도는 없었고 장바구니 제도가 있었음. 장바구니에 미리 과목을 담아놓고 본 수강신청 때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 (전남대와 동일)

5. 중앙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수강신청 방법을 비교하면, 어떤 이유로 어떠한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A: 고려대학교. 수강희망과목 등록을 미리 하므로 부담이 없고 여유로워짐. 수강희망 과목 등록을 미리 하고 그 결과가 본 수강신청 전날에 나오므로 마음이 편해짐. 조금 더 학생을 배려하는 것 같음.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대안 등은 무엇인가요?

* 문헌 조사,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을 기술

[교양 소개 책자 배부]

● 현 교양 체계 분석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입생들이 교양 관련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에브리타임, 학교 홈페이지 등과 같은 시스템 체계가 잘 구축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있다. 첫째, 시스템과 체계는 신입생이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둘째, 교양 과목의 양은 방대해 어떤 교양(기초교양, 균형교양 등)인지 구분하기에도 복잡하고 수강신청 문제, 제도 관련 정보가 에브리타임이나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홈페이지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교양 과목을 하나씩 입력하거나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교양 과목명과 수를 한 눈에 다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한다. 결국, 교양과목 중 자신의 관심 분야와 맞음에도 불구하고 개설 교과목을 파악하지 못해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 필요 전략 유도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

- 대학생들 : 수강 신청 과정에서 대학생의 다양한 정보와 조건을 고려하여 수업을 선택
- 신입생 : 대개 입학과 동시에 대학 수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학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주도적인 수강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이마저도 충분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논문 '대학 신입생의 수업 선택과 좋은 수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결과

: 1학년 시기는 보통 전공보다 교양 수업을 더 많이 수강하는 시기로 더 광범위한 교과목 범위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학년이 낮을수록 강의평가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학년이 낮을수록 강의평가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다. 수업 선택 시 참고하는 수업 관련 정보는 비공식적 정보가 공식적 정보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나왔다. 세부 항목별로 친구나 선배들의 추천, 강의평, 학생 커뮤니티 서비스의 비공식적 강의 평가,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및 이수지침 순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미시, 단계적으로 대학 신입생에게 수업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 자료와 정보, 일종의 소통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식적 자료보다 비공식적 자료인 학생 커뮤니티 서비스의 강의평가를 더 많이 참고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올바른 수업 선택을 왜곡하고 대학 수업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신입생 대상의 오리엔테

이션이나 별도의 교육을 통해 올바른 수업 선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 전략 : 우리는 신입생이 올바르게 편안한 교양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입학, 오리엔테이션, 공지를 통해 정보를 안내할 것이다.

2. 교양 책자 또는 파일 공유

- 논문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따른 대학생의 수강신청 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
: 전공 같은 경우 필수나 선택적으로 들어야할 과목이 소수로 제한되어있다. 하지만 교양교과목 같은 경우 과목 수가 많으며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위주로 듣는다. 교양교과목 수강신청 기준에서 학생들은 '학습 편의성'을 주로 고려하지만 이 중 '학습 기대 및 관심'을 첫 번째로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교양과목에서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나 노력과 더불어 자신의 학습 흥미와 관심을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략 : 교양과목에서 자신의 학습 흥미와 관심에 따른 과목을 찾기 쉽도록 한 눈에 보고 선택 가능한 교양교과목 책자 또는 파일을 만드는 전략을 세웠다.

3. 교양 소개란에 에브리타임 앱을 바탕으로 평가 기입

- 논문 'MZ 세대인 대학생들의 수강 신청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 연구' 결과
: 에브리타임 앱에 노출된 교수평가에 대한 정보와 실제 사이의 정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정확하다는 응답이 4.6%(22명), 다소 정확하다는 42.0%(202명), 보통이 39.5%(190명), 별로 정확하지 않다는 7.3%(35명), 매우 정확하지 않다는 1.0%(5명)로 응답하였다. 결과와 같이 에브리타임에 제공되는 교수평가에 대한 정보가 실제와 비교적 정확한 경향을 보인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에브리타임의 교수평가 정보를 다소 신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수강 신청 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삼는 기준인 교수의 평판도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에브리타임에 노출된 교수의 평판이 실제 교수의 평가에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세부적으로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 앱에 올라온 교수의 평판이 부정적이라면 절대 수강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응답이 26.8%(129명), 고민한다는 66.3%(319명), 교수의 부정적 평판과 관계없이 소신껏 신청하겠다는 6.9%(33명)로 나타났다. 반면 에브리타임의 교수평판이 긍정적이라면 무조건 수강 신청을 하겠다고 한 응답이 29.9%(144명), 고민한다는 59.0%(284명), 평판과 관계없이 소신껏 신청하겠다는 11.0%(53명)로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 에브리타임 앱의 교수 평판도가 긍정적일 경우 수강 신청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략 : 우리는 단순 교양교과목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공식적 자료를 참고하되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교양교과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추천교양교과목 평가(수강 후기)를 넣을 예정이다.

● 전략 구체화

우리 팀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생성된 모든 교양 교과목을 한 번에 파악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책자나 pdf 파일을 만들어 공유할 생각이다. 참여율과 정보 확산율을 고려해 1차적으로 입학과 동시에 책자를 배포하고 2차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공지를 통해 파일을 공유할 것이다. 첫째, 교양 소개 책자를 제공할 경우 입학 축하와 동시에 전남대 입학처와 협업해 신입생들에게 약속한 굿즈를 함께 보내주도록 한다. 두 번째, 교양 소개 책자 내용을 담은 교양 소개 PDF 파일을 각 학과 임원에게 공유하고 스토어나 문자로 학생들에게 공유한다. 각 학과 임원들을 통해 신입생 OT나 공지방에 띄워 공유하여 자신이 필요할 때 파일을 열어볼 수 있도록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한다.

- 교양 소개 책자, 파일 구성

총 4페이지로 구성할 것이며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교양 과목이 어떤 교양인지(기초, 균형 등), 학점, 교수명, 평가로 구성하여 교양 과목 란을 작성할 예정이다. 마지막 페이지는 수강신청 방법과 프리패스권 신청 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넣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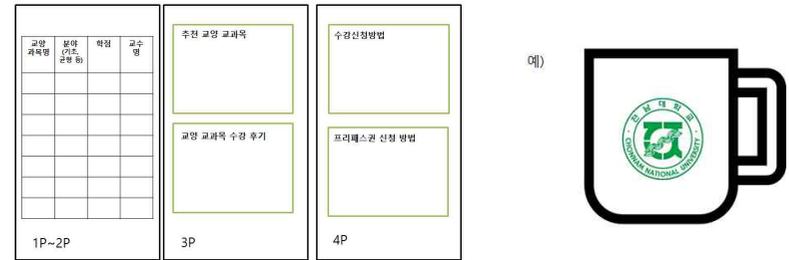
- 평가 란 작성 방안

평가는 에브리타임에 학생들이 입력한 점수와 평가나 수강희망과목 예약 신청률 등에 따라 매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고려한 평가에 따라 최고의 교양교과목을 몇 개로 간추려 수강과목 후기나 추천 란을 따로 마련해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평점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판단한 부분이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수강자 후기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정보로 전부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정보인 수강희망과목 예약 신청률에 따른 교양 교과목 수강자의 몇 가지 수강 후기를 간추려 작성하고자한다.

- 신입생을 위한 전남대학교 키트 구성

설문 조사 결과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굿즈 구성용품은 유용한 용품으로 구성하였다. 굿즈의 구성용품은 학교 로고가 박힌 볼펜이나 달력이나 컵으로 이루어지면 평소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관련 이미지 별도 첨부(교양 책자 구성, 굿즈)



● 논문, 이미지 출처

한국어 APA 단행본 / 내주
(김현숙, 김경, 2022.08.20)
한국어 APA 단행본 / 내주-참고문헌
김현숙, 김경. (2022.08.20). MZ 세대인 대학생들의 수강 신청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 연구 (pp. 2329-2341). n.p.: 인문사회21 13권 4호.

한국어 APA 단행본 / 내주
(이효진, 윤가영, 박인우, 2017.12)
한국어 APA 단행본 / 내주-참고문헌
이효진, 윤가영, 박인우. (2017.12).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따른 대학생의 수강신청 기준에 관한 연구 (pp. 79-99). n.p.: 한국교육학연구 제23권 제 4호

한국어 APA 단행본 / 내주
(김광현, 강성배, 2019.12)
한국어 APA 단행본 / 내주-참고문헌
김광현, 강성배. (2019.12). 대학 신입생의 수업 선택과 좋은 수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 (pp. 415-444). n.p.: 한국문화융합학회 문화융합 제41권 6호.

컵 아이콘 제작자: Freepik - Flaticon

[교양 수강 신청 이용권 '프리패스권']

● **현 수강신청 상황 분석**
 - **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지역 한 4년제 사립대학교의 수강신청에 실패한 자녀를 수업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학부모들 증가

- **한경 잡앤조이 이도희 기자**
 : 학생들 대부분이 제한된 과목 수나 수강 인원 등 다양한 이유로 매년 '올클(All Clear의 줄임말)'을 하지 못한다. 대학가에서는 평균 3~4백만원의 등록금을 지불함에도 듣고 싶은 과목이나 전공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양대 경영학부 재학생 A씨(22)는 "학기 중 전공과목을 워낙 신청하기가 어려워 계절학기로 미리 듣기도 했다"며 정규 학기 수강 신청의 어려움 토로

- **핀포인트뉴스 김선주 기자**
 : 필수과목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종대 컴공과 학생들의 해킹 논란
 -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 학생 "예비수강신청 도입 무색", 대학 "분반 늘리기엔 행정 문제 부담"

- **UNN 이지희 기자**
 : 수강신청 인원 제한, 서버 불안정, 특정 과목 학생 쏠림현상으로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수강신청을 앞둔 때 학기마다 SNS 등에는 '수강신청 꿀팁', '수강신청 폭망', '과목 사고팔기'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략 구체화**
 우리 조는 전 학년에게 요양 프리패스권을 공평하게 2개씩 제공하고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강희망과목을 예약하거나 수강신청 전에 프리패스권을 사용한 과목이 수강신청 완료가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도록 기간을 정해준다. 각 과목 당 프리패스권으로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은 일부만 반영한다. 자신이 원하는 해당 교양 교과목을 선택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프리패스권 제한 개수에 따라 프리패스권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교양 교과목 프리패스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수강희망과목 예약 신청 전에 수강신청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을 보내며 수강신청 내역에 해당 과목이 담기도록 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수강신청 과목을 신청 완료 처리한다.

- **프리패스권 사용&결과 기간**

	전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수강희망과목 등록	(프리패스권 등록 지정 날짜) 07.22~07.24	2023.08.02~08.04
수강희망과목 신청결과	(프리패스권 결과 지정 날짜) 07.30	08.10
수강예약	08.01~08.02	08.11~08.16
수강신청	08.04 이후부터	08.16 이후부터

수강희망과목 예약이 2월 9일과 8월 1일이라고 예상해보면 프리패스권 사용 기간은 대략 1월 29일~30일과 7월 22일~24일로 지정해준다.

- **각 과목 당 프리패스권 수강 인원**
 각 과목 당 프리패스권으로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50~60%만 반영하도록 한다. 100%를 프리패스권 이용자로 채울 시 수강희망과목 예약이나 신청 때 불평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50~60%로 설정하였다.

- **우선순위 선정 기준**

프리패스권 사용자들 중 해당 교양 교과목 수강신청 처리가 완료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정한다.

1. 고학년인 경우
2. 교필인 경우
3. 전에 수강희망과목 예약을 했음에도 수강신청에 실패한 경우+횟수
4. 전에 프리패스권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목을 듣지 못한 경우+횟수

단, 이는 과목 당 지정해둔 등록인원이 초과 시 학년별 또는 전체 정원의 일부만 우선순위 기반 추첨으로 수강신청을 처리한다. 등록인원이 수강제한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전부 프리패스(수강신청)가 되는 방식이다.

5.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과(효과)는 무엇인가요?

1. 학생의 측면

- (1) 과목 자기결정권 보장: 학생의 자유권이 강조되는 대학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음으로써 학생의 과목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업 수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업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다.
- (2) 수업에 임하는 태도 개선: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교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2. 교수자의 측면

- (1) 수업 분위기 개선: 해당 교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 교수자의 수업 태도 개선: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좋아진다면 교수자의 수업에 대한 열의도 높아져 좀 더 열정적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관련 행정부서의 측면

- (1) 교양 과목 활성화: 교육혁신본부를 비롯한 유관 부서에서 심도 깊은 고민과 여러 과정을 통해 신설/개편한 교양 과목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